

기고✧

런던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며



전 승 현
전남도체육회 사무
처장

7월 말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다. 모두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모여든다. 하지만 올해는 산과 바다가 아닌, TV앞에 웅기 종기 모여들어야 할 것 같다. 제30회 런던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월드컵과 함께 세계 스포츠의 양대 산맥이다. 그만큼 45억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회로 평가받는다.

런던 올림픽은 7월28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북동부 리버리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려 8월12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이 이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4개국에서 1만500여명의 선수와 5000여명의 임원, 2만여 명의 취재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의 삶(Live As One)’을 모토로 내건 런던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다.

특히 한국은 1948년에 열린 런던올림픽에서 광복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워 입장했던 역사성을 지닌 개최지다.

이번 대회에는 26개 종목에 총 3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이중 최대 관심사는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From London To London(1948-2012·런

던에서 런던으로)’을 모토로 정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세계 톱10’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회 연속 ‘톱10’에 들었다.

2008년 베이징에서는 역대 최다인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따 종합 7위에 올랐다.

한국은 전통 ‘효자 종목’인 양궁과 태권도를 중심으로 화순 출신 이웅대(삼성전기)의 배드민턴, 박태환(SK텔레콤)의 수영, 김재범(한국마사회)·왕기춘(포항시청)의 남자 유도, 사재혁(강원도청)·장미란(고양시청)의 역도, 양학선(한체대)의 체조, 진종오(KT)의 사격, 남현희(성남시청)의 펜싱 등이 금메달 후보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 출신 및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전남도 선수는 1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웅대, 레슬링 정지현(삼성생명·해남), 사이클 나아름(나주시청·나주), 체조 김승일(수원시청·영광), 핸드볼 웅세라(서울시청)·김은아(인천체육회·이상 무안), 유도 황희태(수원시청·목포), 태권도 차동민(한국가스공사·장흥) 등은 메달 획득 주인공들로 손꼽히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땀던 ‘윙크보이’ 이웅대는 정재성(삼성전기)과 짝을 이룬 남자복식을 비롯하여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전남도체육회에서도 우리 지역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참가선수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오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결단식에서는 격려금도 전달할 계획이다. 입상 포상금도 준비해놓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감히 제안한다. 런던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크게 가져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우리지역 선수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성원 이야말로 선수들의 선전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라남도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도민의 자긍심 고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회 개막 전 우리지역 선수단의 이력과 경기력 등 각종 정보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전남도체육회 문의(061-285-6131·2)도 좋다. 올림픽을 지켜보는 흥미를 배가시켜줄 것이다.